

“광역경제권과 차별화·연계 강화 필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하 동해안경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타 광역경제권과의 차별화 및 연계성 강화가 동시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계교통체계 구축, 개발사업자와의 본 계약 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2일 강원발전연구원에 따르면 동해안경자유구역에서 생산될 마그네슘 리튬 티타늄 지르코늄 니켈 등 '5대 첨단녹색소재'는 전국 광역경제권(5+2)의 선도산업 22개 중 16개와 연관성이 깊다.

총정권의 차세대에너지 및 융합기계부품,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수송기계, 대구·경북권의 그린에너지 IT융복합 스마트기기부품 첨단 융합소재 등이 첨단녹색소재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강발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성공 위해 시급 주장 5대 첨단녹색소재 전국 선도산업 16개와 연관 있어 동해항 확충·동서고속철 등 SOC 조기 확충도 요구

연구원 김인중 선임연구위원은 “동해안경자유구역의 첨단녹색소재산업은 항공기, 자동차부품, 노트북, 이차전지 등 국가차원의 차세대 첨단산업의 핵심 소재와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라며 “전국의 선도전략산업과의 연계는 국가적 소재부품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해안경자유구역 첨단녹색소재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북한과의 경제협력 전진기지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연간 최대 10만톤의 생산능력을 지닌 옥계 마그네슘 생산단

지가 필요로 하는 마그네사이트를 북한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면 현재 전 세계 마그네슘의 87%를 공급하는 중국과 시장을 양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7년 1톤에 2,000달러였던 마그네슘 가격은 중국의 공급 축소 및 수출관세 부과로, 2008년에는 6,100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 같은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동해안경자유구역과 타시·도 간 교통망 확충이 전제 조건이다. 영동지역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7호선은 부산에서 고성까지

502km 구간 대부분이 4차로로 확장됐지만 강릉시 구간인 죽헌교차로에서 옥계나들목까지 35km는 여전히 2차로다. 강릉시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국도 7호선 확장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지만 올림픽 개최와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려되는 등 동해안경자유구역 연결 교통망 확충은 답보상태다.

특히 동해항 확충, 양양국제공항의 활주로 연장,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 등 북방항로시대를 염두에 둔 SOC 조기확충도 요구되고 있다. 또 동해안경자유구역 본 지정 직후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도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13개 개발사업자와의 본 계약(MOA)이, 올해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규호·최성식기자

“지옥훈련의 성과 금빛 레이스로 보여주겠다”

강원육상 선수단 전국체전 앞두고 中 쿤밍서 구슬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지난 1일, 전국체전을 10여 일 앞둔 강원육상대표들이 중국 윈난(云南)성 쿤밍(昆明)에서 펼쳐진 고지훈련을 마치고 쏟아낸 말이다.

해발 1,900여m 쿤밍에서 전국체전에 대비해 마지막 구슬땀을 쏟고 있는 도 대표들이 3주째 고지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현장은 그야말로 지옥이다. 이곳은 평지보다 산소량이 부족해 민감한 사람들은 두통을 호소하고 숙면이 어려울 정도.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스키줄은 2,000m 전력질주 2회, 조강, 1,000m 전력질주로 이어지는 인터벌훈련이다. 평지에서도 가장 소화하기 힘든 인터벌이지만 산소량이 적은 이곳에서의 훈련은 선수들의 눈물을 쏟게 놓는다.

훈련이 계속되고 있는 쿤밍 해경체육훈련기지 2,000m 코스 마지막 400m 트랙에 돌입한 선수들은 감독의 “더 빨리 더, 더, 더!”라는 소리에 초인과의 같은 스피드를 올리고 끝인하자마자 거친 숨소리를 토해내며

- 최신근 도육련 부회장
- 도청·고교 선수 9명 참가
- 고지훈련 3주째인 선수들
- 고강도 훈련에 혀 내둘러
- 최 감독 “금 6개 정도 기대”

트랙으로 곧두박질쳤다. 산소가 부족해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낀 선수들 입에는 하얀 거품 자국이 선명했다.

한국 여자마라톤의 만인니로 올해 불혹을 넘긴 도청 윤선숙도 “매년 하는 고지훈련이지만 전국체전 마지막 4주를 남기고 하는 이번 훈련은 정말 피하고 싶은 훈련”이라고 허탈 내뿜었다.

고지훈련을 처음 경험한 한국 여자마라톤 기대주 상지여고 현서용과 실업 입단 새내기인 도청 김도연도



◇중국 쿤밍 해경체육훈련기지서 4주간 고지훈련을 펼치고 있는 도청 상지여고 춘천농공고 전국체전 도육상 대표 선수들이 선전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중국 쿤밍=김보경기자

“심장이 터지는 것 같다”고 울먹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훈련에 참가한 도대표들은 앞서 오전 5시 기상해 숙소주변을 감싸고 있는 쿤밍 텐즈호수를 낀 5.9km 도로 4회 왕복 120분 조강으로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 적응을 마쳤지만 고강도 인터벌훈련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쿤밍 훈련장은 심폐기능과 지구력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적의 장

소로 전 세계 장거리 지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산소량이 부족해 선수들은 평소보다 몇 배 더 힘들고 고통이 뒤따르지만 평지와 다른 곳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나서게 되면 산소 섭취능력이 올라가고 저항이 약해져 기량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전지훈련은 선수단장인 최신근(도청 감독) 도육상경기연맹 실무

부회장과 도대표인 도청 소속 6명, 상지여고 2명, 춘천농공고 1명 등 선수 9명 감독 1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됐다.

최신근 도청 감독은 “이들에게 이번 체전에서 금메달 6개 정도 바라보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올해 체전에서도 지난해 수준으로 성적을 내겠다”고 말했다.

중국 쿤밍=김보경기자 bkk@

도 현안 국감 이슈화 관심

올림픽 급수시설 동서고속화철도 예산 확보 여부 주목

19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되는 가운데 도출신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서 도 현안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올림픽지역 급수체계(식수전용저수지) 구축 예산 등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도 관련 예산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되살릴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도 현안과 밀접한 상임위는 국토해양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등이다.

국토해양위에는 이이재(동해-삼척)의원이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 저하로 예산(50억) 불용위기에 처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논리와 정부적 판단 촉구에 나선다.

또 북방향로 개척과 올림픽 관련

교통인프라의 차질없는 조성 등과 도내 SOC 관련 예산 지키기도 병행한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염동열(태백-영월-평창-정선)의원은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 지원과 교통인프라 조성 등 차질없는 기반 여건 조성을 뒷받침키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강릉)의원과 김진태(춘천)의원은 법사위에서 공방을 벌이는 중앙 정치권 차원의 이슈와 함께, 도 관련 법안 심의와 관련해 최종 단계에서 막후 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은 접경지역 등 군부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과 현재 소속된 접경지역 사랑 국회의원 협의회를 통해 도내 접경지역에 대한 총체적 예산 지원 등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문헌(속초-고성-양양)의원은 이산가족 상봉을 고리로 한 금강산

관광재개 등 남북경협 문제 등을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 김기선(원주갑)의원은 재정난이 열악한 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점검과 개선책 마련 등을,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홍천-횡성)의원은 한미 FTA 발효와 한중 FTA 협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이번 국감은 대선을 불과 2개월여 앞두고 진행되면서 선거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격에 나설 채비를,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후보 공격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국감이 여야간 경쟁 격화로 민생 현안 소홀 등의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도 정치권이 도내 현안을 알뜰하게 챙길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서울/박지은 pje@kado.net